

전통과 현실의 충돌

- 일본의 스모산업을 중심으로 -

신의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사회학과 교수)

스포츠는 그 사회의 모든 환경, 변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모와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는 일본문화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2월 7일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모노 차림의 스모선수가 각국의 행진을 이끌었다. 즉 스모란 일본의 국민 스포츠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퍼져있다.

일본에서의 프로스모의 상황은 ‘일본스모협회’를 중심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스모선수들은 “Heya 문화”라는 위계적 질서에 의해 생활한다. Heya(방) 안에서 선배와 후배 선수들 사이에는 질서 문화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생활방식이나 음식문화가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국민스포츠인 스모의 세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Gaijin Rikishi(外人力士)의 등장이다. 즉, 해외로부터 유입된 전문 운동선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성적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이 ‘social mobility’론이나 ‘ethnic succession’론 등 사회학적 이론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는 x축을 “years in service”로 놓고 y축을 “ranks(promotion)”으로 놓았을 때 “promotion rate”와 년수가 정관계라는 조직 이론으로 ‘compensatory effect’를 설명한다. 즉, 어떤 조직이든지 위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살아남거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프로스모의 세계에서도 성립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후자는 이민사회 연구의 문헌에 주로 사용하는 이론으로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하에 이루어지는 분석 이론이다.

현재 외국출신 선수의 침입 현상을 살펴보면 외국 선수들의 지위와 그 영향력은 거의 확고한 수준이다. 2007년 5월 춘계경기 챔피언급선수를 살펴보면, 가장 최상급 계급인 Makuuchi급이 Hakuho라는 몽골선수로 그 외에도 top level에 랭킹 되어 있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1998년-2007년까지의 출신국가별 외국 선수들의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외국인 선수가 20명 미만이었으나, 2007년 1월에는 6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 Skitori(十兩이상의 스모선수)는 Makuuchi에 13명, Juryo에는 4명이 있다. 2007년 1월 60명의 외국태생 선수 중 몽골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러시아, 브라질,

에스토니아 등 그 국적은 다양하다. 그 중 특징으로는 \$37,050인 일본의 GNP대비 3분의 1도 되지 않는 \$10,000보다 적은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스모계는 외국출신 선수의 침입에 대해 ‘스모의 몰락이 닥치지 않았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Rikishi의 승진, 강등, 결장률(경기에 나가지 않는 비율)에 따른 추세와 변수들을 조사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국적과 그들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속변수를 승률, 결장률, Makuuchi(최상단 계급)승률, Makuuchi 결장률로 정하고 독립변수들로는 Rishiki의 키, 몸무게, 키와 몸무게의 비(ratio), 스모 데뷔 년도, Juryo 데뷔 년도, Makuuchi데뷔 년도, 출신 국가로 정했다. 결과 중 특이한 점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결장률도 많아 진다는 것인데 이는 ‘personal injury’라고 하여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등급이 높은 선수들이 승률을 올리기 위해 작전상 불리할 것 같은 시합에서 결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잦은 결장은 fan service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하므로 일본스모협회에서 결장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분석은 종속변수를 승률로 놓고, 독립변수는 스모 데뷔 년도, 출신국가, 결장률로 놓았다. 분석 결과 중 주목할 부분은 국적과 성과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외국 출신일수록 승률도 많다는 결론이다. 이는 일본 스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인에게 ‘open door policy’가 유리하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스모협회는 이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올해 이사회에서는 1Heya당 1명의 외국인 밖에 recruit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언젠가 사라지게 되면 일본스모의 외국인 구성 비율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씨름과 같이 전통 스포츠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스모의 quality가 지속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일본 아마추어 스모협회에서는 2008년 올림픽에서 스모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모가 정식종목 채택근거인 성적비율과 국제적인 정도에 아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이 현재 스모는 더 개방을 했으면 했지 폐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스모계는 불미스런 스캔들에 휩싸이는 등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모는 일본의 전통적인 국민 스포츠로서 깨끗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